

영화 영상 크레딧 타이틀(Credit Title)의 구조에 관한 연구

– 100대 영화를 중심으로 –

A Study about the Structure of Style on Credit Titles in Motion Picture

– mainly with 100 major motion pictures –

김 인 철

전주공업대학

김 인 철

Kim, In-Chul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계열 (학사), 대학원졸업

한국미술협회 이사 역임

건국대, 전북대, 계원조형예술대 등 출강

도야마 국제 포스터 트리엔날레 작품선정 작가

멕시코 국제 포스터 비엔날레 작품선정 작가

한국디자인학회, 한국미술협회 회원

현, 전주공업대학 영상멀티미디어과 교수

Contents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II. 본론

1. 크레딧 타이틀 일반

1). 크레딧 타이틀 개요

2). 크레딧 타이틀의 전개

2. 100대 영화의 크레딧 타이틀

1). 100대 영화

2). 100대 영화의 크레딧 타이틀 구조

III.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크레딧 타이틀(Credit Title)은 영화 영상에서 자막(字幕)으로 정의되고 그 주된 기능은 영화 초기 무성(無聲) 영화에서 배우들의 대사를 표기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제작의 주체인 프로덕션을 나타내는 것을 시작으로 인상적인 제목, 주인공과 감독 등 중요한 사람들을 표시하는 시각적 장치로 발전이 되기 시작했다.

근래에 들어 이른바 영화 영상 시대를 맞이하면서 크레딧은 영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울러 영화에서 크레딧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어적 정리도 매우 필요하다.

1985년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 100년을 조금 넘기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미국과 영국에서는 발표된 영화들 이른바 100대 영화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크레딧의 올바른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른바 100대 영화를 기준으로 한 보편적인 크레딧의 구조를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우리나라의 씨네 21에서도 100대 영화를 선정하여 구조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즉 미국, 영국의 작품들에서 벗어나 여타 유럽 및 제 3국, 우리나라의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크레딧 타이틀에 대한 언어적 정리는 영화 용어 사전에서 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법들이 급진적으로 진전되고 있어서 매우 시급하다 생각되어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 즉 크레딧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영화의 전(Pre-Credit), 후(Post-Credit), 중간(Mid-Credit)으로 시작하여 장면의 설명(Sub Title, Caption)에서부터 프로덕션(Logo, Production Credit)의 명확한 정체성 부여는 물론, 영화의 강력한 아이덴티티(Main Credit, Sub Credit)를 관객들에게 심어주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100대 영화의 크레딧 구조는 현재 컴퓨터로 대표되는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고전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캐릭터, 2차원 및 3차원 애니메이션 등이 범람하고 있다는 큰 영화들과 비교하여 영화의 내용에 적절히 어울리는 크레딧이 제작되어야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Credit titles meant only narrations of acting persons were at the beginning of motion pictures without sounds. But the meaning of credits are changing because of coming the era for scenic images. The scenic images with motion pictures are setting for important with many tools as computers and cam-corders. We can create many of images with ease at any time.

In motion picture, the credit titles have created in between films many aspects, especially whole through the movies.

The credit titles are made in 3 major parts-Pre Credit, Post Credit and Mid Credit. Production title, main title and sub credit are for Pre Credit. Caption and sub titles as descriptions for second languages are Mid Credit. Text summaries for whole movies people and as 'The End' are Post Credit. Otherwise, the constructions of credit are in various.

In 100 major motion pictures selected by AFI(American Film Institute), BFI(British Film Institute) and Cine 21 of Korea have expressed at moderate level.

Compare to the other films not in 100 major, this is period of computer graphic interface of well

coordinated with the films in these days, the credit titles are in somewhat classic shape still.

And the visual communication designers have practised well since 1950s for better images in some major films.

Keyword

Credit Titles, Motion Picture,

Image Style

I. 서 론

1. 연구목적

1895년에 처음 인류에 보여진 영화는 불과 100년의 역사를 조금 넘긴 지금, 여러 시각 매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다른 문예 미디어들이 수 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생활 주변에 전설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이처럼 짧은 시기에 주요(主要, major) 매체로 자리잡은 사실은 향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캐나다의 미디어학자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구텐베르그식 활자 문화의 종말을 선언하고 영상 매체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이래, 지난 40년 동안 현대 문명은 급속도로 영상 문화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맥루한이 '쿨 미디어(cool media)'라고 불렀고 196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컴퓨터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캠코더(cam-corder)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으며,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이른바 '영상 모드'로 바꾸어 놓고 있다.

영화를 비롯한 영상 이미지 디자인에 있어서 크레딧 타이틀(Credit Title)은 작품의 성격, 즉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비롯하여 제작물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지표(指標)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화 영상 등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강력한 인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화 영상 크레딧은 매우 중요한 시각적 요소가 되는 셈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유명한 시각 디자이너인 쉘 배스(Saul Bass) 등이 여러 영화의 타이틀 디자인을 담당하여 영화에 대한 강력한 시각적 정체성을 관객들에게 전달한 예를

볼 수 있다. 더욱이 크레딧 타이틀 디자인에 대한 구조적 시각 형식에 대한 분석은 영화의 역사가 100년을 넘어섰고, 21세기 이른바 영상 문화의 세기를 맞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때마침 21세기를 맞아 미국, 영국 등 영화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주요 영화들을 추려서 발표한 예가 있었다. 영화 산업이 나름대로 국가적인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로 장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영상의 정체성과 더불어 국제적인 경쟁 품목이라는 설정을 하였을 때 크레딧 타이틀의 제작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레딧 타이틀의 구조 파악을 1차 목적으로 하면서 언어적 정의를 추구하였다. 아울러 2000년을 기준으로 선정된 미국, 영국 및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의 크레딧 타이틀 구조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시각적 형식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2. 연구 방법

앞서 언급한대로 지난 1세기 동안 보여진 영화들을 토대로 100대 영화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들에 대한 크레딧 타이틀 유형 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영화들의 제목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 표기하였으며, 제목 뒤 괄호 속에는 원제목을 제작국 언어로 표기하였으며, 간혹 원제목과 우리말 번역이 혼동된 것은 함께 표기하였다.¹⁾

100대 영화는 미국의 AFI(American Film Institute)와 영국의 BFI(British Film Institute)에서 2000년을 맞아 제정한 영화들과 함께 AFI에서 제정한 100대 애정 영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에 우리 나라 한겨레신문사 발행 '씨네 21'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도 아울러 참고로 하였다.

수량으로 300 점이나 되는 영화의 크레딧 구조 파악을 연

구의 방법으로 삼았지만, 상당수의 작품들이 국내에서 지명도가 낮거나 제작된 시기가 너무 오래되어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확보 가능한 작품들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II. 본론

1. 크레딧 타이틀 일반

1). 크레딧 타이틀 개요

표제(表題), 제목(題目), 직함(職銜)이라는 의미의 타이틀(title)은 일찍이 자막(字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 영상에서 타이틀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자막 한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영화용어사전에 언급된 자막들로는 크게 자막의 종류와 자막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자막의 정의 다음과 같다.

자막은 영화 제목, 제작진, 출연진 등 각종 정보를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 그 종류를 대별하면, 영화가 시작될 때 제목을 알리는 표제자막, 제작진이나 출연진 등을 소개하는 인물자막, 영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일시나 장소 등을 소개하는 안내자막, 영화의 끝을 표시하는 종영 자막, 무성 영화나 외국 영화의 대사를 알리는 대사 자막 등이 있는데 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자막 따위를 설명자막이나 연결자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막은 인화과정 중에 제작되는 합성장면, 미리 준비한 자막판을 직접 촬영한 자막, 그리고 양자를 복합 시키는 방식 등으로 제작된다.²⁾

1)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Bonnie & Clyde)', '내일을 향해 쏴라(Butch Cassidy and the Sundance Kid)'

2) 이승구·이용관, 영화 용어 해설집(서울, 영화진흥공사, 1995), p349

언급된 자막들은 크게 종류별, 형태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종류별로는 영화 영상의 시작, 중간 및 끝 부분에 나오

는 것들과 제작된 형태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표1). 사전에 언급된 로고(logo)는 제작사 크레딧을 말한다. 거의 모든 영화의 시작은 제작사, 즉 프로덕션(production) 크레딧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널리 알려진 제작사 크레딧 타이틀로는 미국의 컬럼비아(Columbia), 20세기 폭스(20th Century Fox), 유니버설(Universal), 워너 브러더스(Warner Bros.), 엠지엠(MGM) 파라마운트(Paramount) 등의 영화사를 들 수 있다 (그림 1).

(표 1) 자막의 종류

	종류별	형태별
시작 (opening) Pre-Credit	-로고(logo) ; 프로덕션 (제작사) 크레딧 -메인타이틀 -인물자막(credit title) -초개인물자막(初開人物字 幕, front credit, 서브 크 레딧)	-드롭 새도우 (drop shadow) -수평자막 -실용자막 -플립타이틀(flip title)
중간 (Mid- Credit)	-삽입자막 -서브 타이틀 -설명자막	-합성자막(合性字幕, super impose title) -회전자막(回傳字幕, roll-ing title)
끝 (end) Post-Credit	-인물자막 -종영자막(終映字幕, end title)	



(그림 1) 프로덕션 크레딧

인물자막, 즉 일반적으로 영화 자막 또는 크레딧 타이틀로 알려진 것은 영화 시작 부분에서는 초개인물자막 즉 오프닝 또는 프론트 크레딧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의 주인공을 비롯하여 주요 제작 참여자들을 영화의 시작과 더불어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영화의 시작과 더불어 소개된 오프닝 크레딧은 대개 영화의 종료와 더불어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되는데 이를 종영자막, 즉 엔드 크레딧(end credit) 또는 엔드 타이틀(end title)이라고 부른다.

영화 중간에 보여지는 삽입자막(insert title)은 일찍이 영화 초기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때 배우의 대사들을 자막으로 처리하던 매우 고전적이면서도 자막의 본래 개념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 요즘에는 영화 장면의 시간이나 장소 또는 지나간 사건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서브 타이틀(sub title)은 영화의 대사를 우리말 또는 해당 국어로 번역되어 표시해주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삽입자막과 더불어 설명자막(caption)으로 통칭하여 불려지게 된다. 형태로 본 자막들로는 우선 드롭 새도우(drop shadow)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글자에 그림자 효과를 주는 방법을 말한다.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 영화의 성격을 강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영화 제작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다.

수평자막(水平字幕, pan title)은 화면 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자막을 말하며, 실용자막(實用字幕, action title)은 특별한 문자 제작 기법을 쓰지 않고 철판, 낙서, 모래, 종이에 그려진 그림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과거 비전문 영화 제작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몇몇 영화에서는 효과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합성자막(合性字幕, super impose)은 실용자막과 반대로 문자 발생기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회전자막(回傳字幕, rolling title)은 글자가 화면의 밑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사라지는 자막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크리핑 타이틀(cripping title), 크롤 타이틀(crawl title), 러닝 타이틀(running title), 롤 업 타이틀(roll up title) 등 제작 기법상 구분이 된다. 플립 타이틀(flip title)은 플

립 오버(flip over), 즉 화면이 수직 또는 수평 축에 의하여 움직이는 기법에 따라 타이틀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한다. 크레딧 타이틀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자막, 크레딧, 타이틀로 각자 편의에 따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 소통에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시작(위), 중간(장면 삽입), 종영 자막

2). 크레딧 타이틀의 전개

우선, 역사적인 크레딧의 전개를 살펴본다.

초기 무성 영화에서 크레딧은 배우들의 대사를 자막으로 보여주는,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것이 바로 자막의 원형이었으며 현대 크레딧의 출발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막보다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니게 된 의미의 크레딧은 점차적인 영화 구조의 발전 및 제작술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시 언급하면 영화의 크레딧은 영화 전(Pre-Credit)과 영화 후(Post-Credit)와 영화 중반(Mid-Credit) 크레딧으로 나눌 수 있다. 영화 전 크레딧은 이미 살펴 본 프로덕션 크레딧과 영화 제목을 표시하는 메인 크레딧(타이틀)과 이에 따른 서브 크레딧(타이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화 후 크레딧은 엔드 크레딧(타이틀)로 나누어 경우에 따라 메인 엔드와 서브 엔드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메인 크레딧은 영화의 제목을 나타내는 것이며, 서브 크레딧은 제목 이후 또는 이전에 보여지는 주요 인물(주연, 감독, 제작자 등)을 나타내게 된다.

엔드 크레딧은 영화 종영과 더불어 인물 자막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여지는 형식과 그야말로 전형적인 종영 자막, 즉 '끝(The End, Fin, 終)' 등의 글자를 말한다. 대체적으로 엔드 크레딧은 관객들의 관심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소홀히 처리 하기도 하지만, '새벽의 7인(Operation Daybreak)'에서처럼 주요 인물들의 얼굴들을 보여주며 이들의 생사를 설명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꼬마 유령 캐스퍼(Casper)'에서는 엔드 크레딧 도중에 극중 캐릭터가 잠깐 나타나 웃음을 선사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나 둘이서(Two for the road)'에서는 영화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동차 여행과 도로 표지 및 가로수 등을 2차원으로 처리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 3) 와일드 번치의 메인 크레딧, 엔드 크레딧과 언제나 둘이서의 종영 자막

이미 언급한대로 자막은 무성 영화 시기의 커뮤니케이션 보조 수단으로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유성영화(talkie movie) 이후 타이틀은 영화사, 영화 제목, 주인공, 감독 등을 매우 간단히 나타내는 전개되었다.

50, 6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작가주의 및 독립 영화의 흐름은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 감독 등의 독특한 심리주의적 영화에 집약이 된다. 그의 작품 '새(The Bird)', '싸이코(Psycho)', '현기증(Vertigo)', '이창(裏窓, The Rear Window)' 등에서는 영화의 특성을 매우 잘 살린 크레딧들의 예를 볼 수 있다. 1955년 심리주의 계열 영화들을 제작해 온 오토 프레밍거(Otto Preminger)는 당시 미국을 대표하는 시각 디자이너 쉘배스(Saul Bass)에게 자신의 영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The Man with Golden Arm)'에 대한 크레딧 제

작을 의뢰하였다.

마약 중독을 다룬 이 작품을 위하여 배스는 널빤지 모양의 두꺼운 추상적 그래픽 요소들을 사용하여 공허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암시하는데 성공하였다.³⁾

그의 크레딧 스타일은 '살인의 해부(Anatomy of a Murder)' 등에 이어졌으며 '대탈출(Exodus)', '키에프의 신화(The Fixer)',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 등의 명작 크레딧을 남기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작품은 히치콕 감독과 함께 만든 '싸이코(The Psycho)'를 들 수 있다. 그는 감각적인 크레딧과 더불어 샤워 중 살해 장면을 매우 유효적절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공헌은 '스파르타쿠스(Spartacus)' 등을 비롯한 영화들에 이어졌다.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솔 배스는 마틴 스코르세지(Martin Scorsese) 감독의 '좋은 친구들(Good Fellas)', '케이프 피어(Cape Fear)' 등으로 계속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감독인 팀 버튼(Tim Burton), 조 존스톤(Joe Johnston) 등 역시 직접 개성 있는 크레딧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솔배스의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케이프 피어 크레딧

시각 디자이너들의 영화 크레딧 제작은 뉴욕에서 성공한 시각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 1960년 영국으로 건너가 주로 크레딧 타이틀 분야에 공헌한 로버트 브라운존(Robert Brownjohn)의 '007 골드 핑거(Gold Finger)'를 들 수 있다. 그의 작업은 35mm 컬러 슬라이드로 만들어져 실시간으로 촬영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몸에 투영된 것으로, 이후 007 영화 크레딧의 독창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문예 영화의 전통이 확고했던 60, 7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거의 유일한 오락 영화로 취급되었던 007 시리즈는 1962년 '살인번호(Dr. No)'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볼거리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007 영화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구가 보여지면서 주인공이 걸어 나온 후 총을 한 방 쏘면 화면이 붉은색으로 물들여지면서 티저⁴⁾(teaser) 영화용어사전p456 장면이 시작되는 프롤로그(prologue)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프롤로그가 아이리스⁵⁾(iris)로 끝이 나며 본격적인 메인 크레딧과 서브 크레딧들을 보여주게 된다. 007 시리즈 영화는 프롤로그까지 포함하여 비교적 긴 영화 전 크레딧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3) P. B. Veggs, A History of Graphic Design(New York, Wiley & Sons, 1998), p342

4) 자막이 나타나기 전에 보여지는 개시 장면으로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장면 따위가 잠시 나타난 뒤 자막이 제시됨으로써 그 다음의 진행 과정이 몹시 기다려지게 하는 것, 이승구·이용관, 영화 용어 해설집(서울, 영화진흥공사, 1996), p456

5) 작은 화상(畫像)이 점차 커지도록 하는 촬영 기법. 즉 007 영화에서 티저 기법으로 장면이 나올 때 원 모양의 종구에 피가 흘러내린 후 이것이 원모양의 아이리스가 되며 첫 장면이 시작된다. 박선의, 디자인 사전(서울, 미진사, 1996), p188



(그림 5) 007 시리즈의 다양한 크레딧

다음은 크레딧의 형식적 전개를 살펴본다.

첫째, 제작사를 나타내던 단순한 의미의 프로덕션 크레딧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영화의 내용과 상관 있으며, 입체적이며 움직임이 있는 프로덕션 크레딧의 등장이다. '가위손 (Edward Scissorhand)'는 내리는 눈 속의 20세기 폭스 크레딧이, '울프(Wolf)'에서는 안개가 좌측에서 밀려드는 컬럼비아 크레딧이, '배트맨 2(Bat Man Returns)'에서는 워너 크레딧이 배트맨 캐릭터로 모핑(morping)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근래에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데 '케이프 피어'에서는 물 속에서 유니버설의 로고가 보여지며 '트위스터 (Twister)'에서는 돌풍에 휩싸이는 유니버설의 크레딧이 보여지고 있다.

때때로 프로덕션 크레딧은 1995년 프랑스 영화사 고몽(Gaumont)사의 것처럼 영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제작되기도 한다.

둘째, 캐릭터(character) 크레딧의 전개이다.

메인 타이틀을 캐릭터 처럼 독특한 시각적 조형성을 지니게 된다. '고스트 바스타(Ghost Busters)', '가위손', '스타워즈(Star Wars)', '구니스(The Goonies)', '심연(Abyss)', '탑건(Top Gun)', '마스크(Mask)', '쥬라기 공원', '배트맨',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 등에서 보여진다.



(그림 6) 변화 있는 프로덕션 크레딧과 캐릭터 메인 크레딧

셋째, 움직임이 있는 크레딧이 보여지고 있다.

초창기 크레딧의 모습은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메인 타이틀의 움직임만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히치콕 감독의 일련의 작품들에서 먼저 보여진 애니메이션 크레딧은 초창기 '39계단(39 Steps)'에서 예견이 되던 것이었다.

80년대 영화 '슈퍼맨(Super Man)' 시리즈에서 보여지던 움직임은 이후 '스타워즈' 등을 거쳐 90년대 '배트맨 포에버(Bat Man Forever)', '트위스터', '인디펜던스 데이 (Independence Day)'를 비롯하여 프랑스 영화 '트뤼프 (Trufe)' 등에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영화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움직임 크레딧들로는 열차의 신속한 모습을 연결한 '머니 트레인(Money Train)'과 함께 제목과 내용의 상징성을 연결한 '고공침투(Drop Zone)', '터미널 스피드 (Terminal Speed)'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3차원(3D) 애니메이션 크레딧들의 등장이다.

'에일리언(Alien)' 시리즈, '터미네이터(Terminator)', '트루 라이즈(True Lies)', '네메시스(Nemesis)' 등에서는 메인 타이틀이 3차원 입체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지고 있다. '배트맨 포에버(Bat Man Forever)'의 경우 3차원으로 주연 및 주요 인물을 나타내는 서브타이틀들을 3차원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디지털맨(Digital Man)'에서는 2차원 및 3차원, 렌더링(rendering), 애니메이션의 종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움직임이 있는 크레딧과 3차원 입체 애니메이션 크레딧

끝으로, 실용자막은 컴퓨터 및 자막 발생기로 보여지는 틀에 박힌 크레딧을 벗어나 자유롭고 재미있는 조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쏘 배스가 연출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이다. 뉴욕 맨하탄 서쪽 빈민가 십대(10代)들의 모습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그들의 낙서를 중심으로 크레딧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알라바마에서 생긴 일(앵무새 죽이기, To Kill a Mockingbird)'에서도 어린이의 화구(畵具)통을 중심으로 실용자막이 보여지고 있으며, 필름이 굽히고 잘린 자국을 불안하게 보여주는 '세븐(Seven)' 역시 실용자막의 한 예가 되겠다.

실용자막은 유효 적절하게 사용함에 따라 의외의 친밀함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진부(陳腐)하게 보일 수도 있는 약점이 있다.

2. 100대 영화의 크레딧 타이틀

1). 100대 영화

2000년을 맞아 미국영화연구소(미영연, AFI : American Film Institute)와 영국영화연구소(영영연, BFI : British Film Institute)에서는 각각 100대 영화를 선정 발표하였다. 미영연(AFI)에서는 19개월 동안 1,500명에 달하는 미국 영화협회(American film community)의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우들, 제작자, 편집자, 영화역사 및 평론가 등에게 1896년부터 1996년까지 제작된 영화들 중에서 100대 작품을 의뢰한 뒤 일차적으로 400 편을 선정한 뒤 여기서 100점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들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미국 CBS에 의하여 세 시간의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영영연(BFI)에서는 1999년 1,000명의 영국 필름산업 종사자들 즉, 제작자, 작가, 배우들, 교육자, 기술자, 전시자, 배급자 및 비평가 등에게 100대 영화 선택 책자를 발송하였으며 이들은 20세기에 발표된, 구체적으로 1935년부터 1998년까지의 '가장 영국 문화적'인 영화들을 820 개의 작품 중에서 선정하였다. 특징적인 사항은 1위로 선정된

'제3의 사나이(The Third Man, Carol Reed 감독)'의 경우,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나 주인공인 죠셉 카튼(Joseph)과 오손 웰즈(Orson Wells)는 미국의 배우였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적인 것을 배제하려 했지만 경계를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영연(BFI)의 100대 영화들은 30년대 영화가 세 편, 40년대 16편, 50년대 10, 60년대 26, 70년대 10, 80년대 18, 그리고 90년대에 제작된 것이 17편으로 되어 있다.

미영연과 영영연의 집계 영화들에서 1960년대의 영화들이 상당수 포함된 대목은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며, 80년대와 90년대의 영화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은 그만큼 관객의 기억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영화 주간지인 씨네 21에서 100대 영화를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선정에는 영화평론가 안병섭 · 주진숙 · 김지석 · 정성일 · 이효인씨 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을 비롯해 김홍준 · 김소영 · 이정하 · 강한섭 · 이용배씨 등 20여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씨네 21의 선정 결과는 당연히 미국과 영국의 선정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일본 구 소련 및 제3세계(유고 연방, 라틴 아메리카, 터키, 중국, 뉴질랜드)의 영화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오발탄, 서편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작품들이 100대 영화로 선정되었다. 미국 및 영국의 작품을 가 능하면 배제하려 한 느낌이 보이며 여성 문제를 다룬 것이 눈에 띄기도 한다.

크레딧 구조 분석을 위한 100대 영화는 우선 미영연의 것들을 기준으로 연대별로 구조를 분석하였다. 수입되는 비디오 테잎의 대부분이 미국의 것이었으며 제 3세계를 위주로 다룬 씨네 21의 작품들을 구하려 애를 썼으나 매우

어려웠다. 그렇지만 미영연과 영영연 및 씨네 21의 선정에 중복되는 작품들도 꽤 있었는데 이들의 크레딧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2에서처럼 미영연의 선정 작품들을 살펴본 뒤 여기에 영영연의 선정 작품들과 씨네 21의 작품들을 추가 했으며 구하기 어려운 작품들은 제외하였다.

2). 100대 영화의 크레딧 타이틀 구조

우선 미영연과 영영연이 선정한 100대 영화에서 중복된 것과 미영연과 씨네 21중복된 작품들의 크레딧 구조를 살펴본다.

미영연과 영영연에 중복이 되는 작품들은 '아바리바의 로렌스', '콰이강의 다리', '제3의 사나이', '의사 지바고'의 네 작품뿐이며, 미영연과 씨네 21의 선정 결과와 중복되는 작품들로는 '시민케인', '대부', '사랑은 비를 타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지옥의 묵시록', '애니홀', '대부II',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스', '이지라이더', '용서받지 못한 자'의 열 세 편이다. 영영연과 씨네 21에서 중복되는 작품은 1968년 작품 'IF(Lindsay Anderson 감독)' 하나가 있는데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 세 선정 기구 모두에 중복되는 작품은 없었는데 그 이유로는 앞서 자료에 제시했듯이 씨네 21에서는 상당수의 제3 세계 작품을 선정하는 한편, 미국의 보편 타당한 작품들도 아울러 제시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것들이 중복이 되었지만 영국의 경우, 지나치게 영국적인 작품 위주로 선정이 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비롯하여 미국과 영국의 양대 기구에서 중복 된 작품들의 크레딧은 매우 단순하다. 1939년 제작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보여지는, 당시로 보아 획기적이랄 수 있는 크레딧에 비한다면 대부분 매우 보편적이며 전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 3의 사나이'에서는 오프닝 크레딧에 그리스 전통

악기의 줄(絃)이 튕겨 지는 모습만이 눈에 띈다.

미영연과 씨네 21의 중복 작품들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1992년에 제작된 '용서받지 못한 자'의 크레딧이 훨씬 전에 제작된 것들과 비교하여 매우 전형적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적이다.

영화 초창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제작된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와 '황금광 시대'의 크레딧은 현대를 상징하는 시계를 바탕으로 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구조이며, '대부' 씨리즈의 캐릭터가 있는 메인 크레딧과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의 셀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가까우면서도 흥미 있는 크레딧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매우 평범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의 크레딧에 보여지는 주인공과 당대의 시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 쇼(slide show)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그림 8) 중복 선정 작품들의 크레딧

(1) 1925년부터 1950년 이전의 영화 크레딧

가장 오래 된 작품으로 선정된 것은 1925년 제작된 구 소련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Sergei Eisenstein)의 '전함 포템킨'이며, 1931년 독일 감독 프리츠 랑(Fritz Lang)의 '엠(M)'을 비롯하여 당시 영국에서 활약하던 히치콕 감독의 '39계단' 및 '흑수선', 미국 작품으로 '카사블랑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이 있다. 아울러 이탈리아의 '무방비 도시', '자전거 도둑' 등도 이 시기에 제작이 되

었다.

우선 이탈리아 작품은 당시 사실주의 영상의 전형을 보이던 것처럼 크레딧 역시 고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무방비 도시'의 영문 크레딧에 보인 드롭 새도우 효과는 '39 계단'을 비롯한 먼저 제작된 유럽 영화들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거의 모두 고전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길(1953)'과 '8 1/2(1963)'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림 9) 1925년부터 1950년 이전의 크레딧

(2) 1950년부터 1970년 이전의 영화 크레딧

이 시기는 영화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해당이 된다.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동서냉전의 시대, 월남전 등의 외부적인 영향과 함께 유럽에서부터 주장된 새로운 물결의 영화 운동 등으로 실험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또한 아직 텔레비전의 보급이 덜 된 탓에 영화는 나름대로 확고한 미디어로 역할을 다 하던 시기였다.

매우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모두 열거하기 힘이 들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히치콕 감독을 필두로 하여 일단의 프랑스 감독들의 영향 및 미국의 '아메리칸 뉴 시네마' 운동으로 인하여 영화사에서 두드러진 명작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물론 미국 영화의 전형인 이른바 역사를 주제로 한 대작들도 함께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크레딧들은 이중적 구조를 보인다. 미국 중심의 비교적 규모가 큰 영화는 고전적인 구조를 보이지만 개인

적인 일상사를 다룬 영화들의 크레딧들은 실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하이눈', '세인', '벤허', '자이안트' 등의 미국적 작품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지상에서 영원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을 비롯하여 이미 언급한 '콰이강의 다리'와 '아라비아의 로렌스' 등 대작들은 모두 전형적인 크레딧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싸이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이창', '와일드 번치', '현기증' 등은 매우 실험적인 크레딧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여 이후 제작된 영화들의 크레딧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영화 제작에 시각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영국에서 007 영화 시리즈가 제작된 시기도 바로 이때이다. 아울러 '졸업', '이지라이더', '우리에게 내일 없다', '미드나이트 카우보이' 등에서는 영화의 도입부 진행과 크레딧이 함께 진행되는 이른바 병렬적 서사 구조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10) '현기증(Vertigo)'의 크레딧

(3) 1970년부터 1985년 이전의 영화 크레딧

미국에서는 월남전의 종말과 더불어 세계적인 무역의 증가는 영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게 하여 스티븐 스피

버그(Steven Spielberg)로 대표되는 이른바 흥행 감독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부'의 성공은 2편을 만들게 되어 역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자, 이후 연작 영화의 제작이라는 유행이 시작되었다.

텔레비전에서 표현이 어려운, 영화의 나름대로의 성격을 제시하는 작품들이 제시되면서 이에 걸맞는 크레딧이 제작되었다.

'대부', '스타워즈', 'E.T.', '조스', '제 3세계와의 조우', '로키', '레이더스' 등의 메인 크레딧들은 아직까지 관객들이 기억하는 강력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제 3세계의 작품들과 소외 계급(흑인)의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붉은 수수밭(紅薔梁)'과 '올(터키)', 유고의 '안개 속 풍경' 및 미국의 흑인 감독 스파이크 리(Spike Lee)의 '뚝바로 살아라'이다. 스파이크 리 감독의 일련의 작품들은 일상적인 주변 사물들을 오브제(object)로 응용한 크레딧을 보여 주고 있다.

같은 시기 작품들로 독일에서 제작된 '양철북',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이 씨네 21에 의하여 선정이 되었는데 이 중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의 크레딧은 글자들이 정지된 화면 위에 점차적으로 채워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4) 1985년 이후의 영화 크레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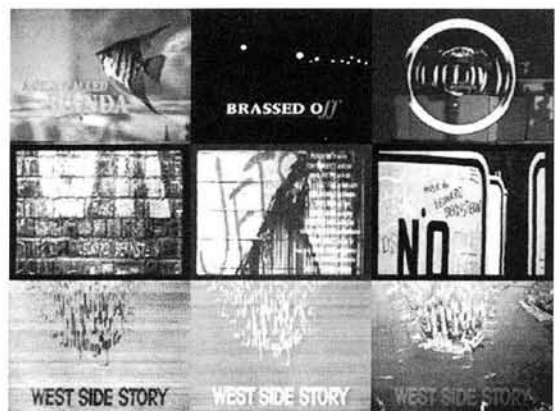
1985년 이후 미국 100대 영화의 크레딧은 다시 고전적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 시기 전세계적으로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이른바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영화 제작이 붐을 이루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매우 예외적인 크레딧의 구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썬더러 리스트', '파고', 양들의 침묵', '포레스트 검프'를 비롯하여 '용서받지 못한 자'의 크레딧은 모두 고전적이다. 한편, 영영연에서 선정한 영화들 중 이 시기의 작품들을 매우 많이 볼 수 있다. '트레인 스포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풀몬티', '크라잉 게임', '완다라

는 이름의 물고기', '셰익스피어 인 러브',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브레스 오프', '엘리자베스', '남아 있는 나날', '잉글리쉬 페이션트', '나의 왼발', '브라질'을 비롯하여 대만 감독 이안(Ang Lee)이 감독한 '센스 앤 센서빌리티' 등이 이 시기의 영국 작품들이다.

이들 중에 상당수의 작품들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했으므로 지금이 바로 영국 영화의 전성기에 해당 된다고 봐도 될 것이다.

특징적인 크레딧은 미국의 것들이 고전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반하여 영국의 것들은 비교적 영화의 성격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에서 세탁통을 나타내는 회전 자막과 '네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브레스 오프', '풀몬티' 등의 크레딧은 적극적으로 영화의 성격을 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극적 구조를 가진 '남아 있는 나날'과 '센스 앤 센서빌리티'는 고전적인 크레딧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영국 영화들의 크레딧과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실용자막 구조의 크레딧

(표 2) AFI, BFI의 100대 영화 목록

AFI			BFI		
순위	제목/비고	제작년도	순위	제목/비고	제작년도
1	시민케인© (Citizen Kane)	1941	1	제3의 사나이 (The third man)	1947
2	카사블랑카 (Casablanca)	1942	3	아라비아의 로렌스 (Lawrence of Arabia)	1962
3	대부© (The God Father)	1972	4	39계단(The 39 Steps)	1935
4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1939	10	트레인 스포팅 (Trainspotting)	1996
5	아라비아의 로렌스© (Lawrence of Arabia)	1962	11	콰이강의 다리 (The Bridge on the Kwai)	1957
7	졸업(The Graduate)	1967	19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	1981
9	선들러 리스트 (Schindler's List)	1993	23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Four Weddings and A Funeral)	1994
10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	1952	25	풀몬티(The Full Monty)	1997
13	콰이강의 다리© (The Bridge on the Kwai)	1957	26	크라이징게임 (The crying game)	1992
15	스타워즈 (Star Wars)	1977	27	의사 지바고 (Doctor Zhivago)	1965
18	싸이코(Psycho)	1960	34	간디(Gandhi)	1982
19	차이나타운 (Chinatown)	1974	39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A Fish Called Wanda)	1988
20	닭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1975	44	흑수선(Black Narcissus)	1947
22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A Space Odyssey)	1968	49	셰익스피어 인 러브 (Shakespeare in Love)	1998
25	E.T.(The extra-terrestrial)	1982	50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My Beautiful Laundrette)	1985
27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Bonnie and Clyde)	1967	53	나의 왼발(My Left Feet)	1989
28	지옥의 묵시록© (Apocalypse Now)	1979	54	브라질(Brazil)	1985
31	애니홀(Annie Hall)©	1977	55	잉글리쉬 환자 (The English Patient)	1996
32	대부 II© (The Godfather part II)	1974	62	센스 앤 센서빌리티 (Sense and Sensibility)	1995
33	하이 Noon (High Noon)	1952	64	남아 있는 나날(The Remains of the Day)	1993
34	영무새 죽이기 (일라리아에서 생긴 일) To Kill a Mockingbird	1962	70	007 골드 핑거 (Goldfinger)	1964
36	미드나이트 카우보이 (Midnight Cowboy)	1969	71	엘리자베스 (Elizabeth)	1998
39	의사 지바고 (Doctor Zhivago)	1965	74	자칼의 음모 (The day of the Jackal)	1973

AFI			BFI		
순위	제목/비고	제작년도	순위	제목/비고	제작년도
40	북쪽으로 진로를 돌려라 (North by Northwest)	1959	81	시계바퀴 오렌지(A clockwork orange)	1971
41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West Side Story)	1961	85	브레스 오프 (Brassed Off)	1996
42	이창 (Rear Window)	1954	100	킬링 필드 (The Killing Fields)	1984
45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A streetcar named desire)	1951			
47	택시 드라이버 (Taxi driver)	1976			
48	조스(Jaws)	1975			
50	내일을 향해 쏴라 (Butch Cassidy and the sundance kid)	1969			
52	지상에서 영원으로 (From Here to eternity)	1953			
53	아마데우스 (Amadeus)	1984			
55	사운드 오브 뮤직 (The sound of Music)	1965			
57	제3의 사나이© (The third man)	1949			
59	이유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	1955			
60	레이더스(Raiders of the lost ark)	1981			
61	헝기증(Vertigo)	1958			
62	투스(Tootsie)	1982			

AFI			씨네 21(중복된 것 제외)		
순위	제목/비고	제작년도	순위	제목/비고	제작년도
64	제3세계와의 조우(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1977	6	전함 포템킨 (Bronenosets Potemkin)	1925
65	양들의 침묵(The Silence of the Lambs)	1991	13	M	1931
69	셰인(Shane)	1953	23	무방비 도시 (Open City)	1945
70	프렌치 커넥션(The French Connection)	1971	27	자전거 도둑 (Ladri di Bicilette)	1948
71	포레스트 검프 (Forest Gump)	1994	34	길 (La Strada)	1954
72	벤허(Ben-Hur)	1959	47	8 1/2	1963

AFI			BFI		
순위	제목/비고	제작년도	순위	제목/비고	제작년도
74	황금광 시대(The gold Rush)	1925	73	이레이저 헤드(Eraserhead)	1978
75	늑대와 춤을(Dance with wolves)	1990	74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Die Ehe der Maria Braun)	1979
78	로키(Rocky)	1976	75	양철북(Die Blechtrommel)	1979
79	디어헌터(The Deer Hunter)	1978	78	욘(Yol)	1982
80	와일드 번치(The Wild Bunch)	1969	79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1982
81	모던 타임스(The modern Times)	1936	86	붉은 수수밭(紅膏梁)	1988
82	자이언트(Giant)	1956	87	똑바로 살아라(Do the right thing)	1989
83	플래툰 (Platoon)	1986	91	안개 속 풍경(Topio stin Omichli)	1989
84	파고(Fargo)	1996			
88	이지라이더(Easy Rider)	1967			
94	좋은 친구들(GoodFellas)	1990			
98	용서받지 못한 자(Unforgiven)	1992			

*미국 영화연구소(AFI)의 선정 작품 기준으로, 영국영화연구소(BFI)에서 선정한 것들과 중복되는 것은 ㉞로 표기했으며 씨네 21이 선정한 것과 중복되는 것은㉡로 표기했다

III. 결 론

크레딧 타이틀은 자막으로 단정하여 설명이 되겠지만 영화 영상 시대를 맞이하여 그 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상의 경쟁은 이미지들이 인상적으로 관객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매우 중용한 시각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컴퓨터와 캠코더로 대표되는 인터페이스(interface) 미디어의 범람은 나름대로 인상적인 크레딧 이미지의 제작을 매우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크레딧의 중요성은 크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차적인 목표로 삼은 크레딧 타이틀의 언어적 개요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크레딧은 영화의 프로덕션 크레딧 처럼 영화전에 나타나는 요소와 오프닝 크레딧이라 하여 영화가 시작되면서 보여지는 것이 있다. 오프닝 크레딧은 다시 영화의 제목을 나타내는 메인 크레딧과 이후 주요 인물들을 나타내는 서브 크레딧으로 나눌 수 있다. 영화의 중간에는 장면 설정과 시공간적 설명, 외국어 자막 등을 나타내는 삽입자막, 서브 타이틀, 설명자막 등이 있다. 종영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인물 자막이 보여지면서 '끝'과 같은 엔드 크레딧이 있다.

크레딧의 성격을 이와 같이 정리한다면,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드롭 새도우, 수평자막, 실용자막, 플립 타이틀, 합성자막, 회전 자막 등이 있다.

크레딧 타이틀은 무성 영화시기 대사를 처리하던 기능에서 갈수록 세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므로 한 번 정도 언어적 정리를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을 맞아 미국과 영국 및 우리 나라 씨네 21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를 기준으로 크레딧의 형식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는 소위 성공한 영화 영상에서

보편적인 크레딧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 영상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한 것이다. 100대 영화에서의 크레딧 구조는 이른바 컴퓨터로 대표되며 한창 범람하고 있는 시각적 표현 시대에 비추어 아직은 고전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한다면 대부분 영화의 크레딧에서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사용한 매우 현란한 크레딧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100대 영화에서는 그러한 제작 기법이 매우 절제되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문의 맨 마지막 그림으로 제시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보여지는 이른바 실용자막은 본 연구의 결론을 강력하게 옹호해주고 있다. 뮤지컬 영화의 대명사(代名詞) 격인 영화의 성격으로 볼 때 매우 의외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크레딧 타이틀은 매우 중요한 영화의 요소이지만 내용과 그럴듯하게 어울리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인철, 하드매트(Hard Matte) 영상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 디자인학 연구, Vol 12, 1999, 11, no. 4)
- 2). 김인철, 영화에서 적절한 컴퓨터그래픽 기법의 활용을 위한 제안(한국디자인학회 ; 디자인학 연구, Vol 11, 1998, 5, no. 2)
- 3). David Bordwell · Kristin Thompson, Film Art ; An Introduction, 주진숙 · 이용관 역(서울, 이론과 실천, 1994) Bernard F. Dick, Anatomy of Film, 김시무 역(서울, 시각과 언어, 1994)
- 4). P. B. Meggs, A History of Graphic Design(New York, Wiley & Sons, 1998)
- 5). 6 Chapters in Design(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1997)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